

# 아시아-구주항로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세 지속

## 올 1-2월 아시아-구주서항 15% 증가

아시아-구주항로의 컨테이너물동량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년 2월중 아시아에서 구주지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은 39만TEU로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했다. 특히, 지중해지역으로 나간 화물은 20% 가량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이 항로 취항선사들의 컨테이너화물 소석률이 95%를 웃도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금년 1-2월 아시아-구주항 컨테이너화물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87만TEU에 달하는 등 올 들어서도 지난해와 같이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운임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1-2월의 구주항 컨테이너화물의 지역별 증감현황을 보면, 북구주선용이 12% 증가한 65만TEU, 지중해선용이 27% 증가한 22만TEU를 기록했다.

또 구주지역에 수출되는 아시아발 컨테이너화물의 선적국가별 증감현황을 보면, △중국이 전년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한 45TEU로 전체 물동량의

51%를 차지했으며, 이어 △일본이 1% 증가한 8만TEU △한국이 13% 증가한 5만TEU △베트남이 16% 증가한 4만7,000TEU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구주운임동맹은 아시아-구주항로의 경우 현재 순조로운 화물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어 금년 2/4분기나 3/4분기에도 취항선사들의 소석률이 9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의 용선료나 연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운항비용 증가와 유럽 주요 항만의 화물처리 능력부족에 의한 스케줄 지연으로 야기되는 추가 비용발생으로 인해 선사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별써 유럽의 일부 항만에서는 처리능력 부족에 의한 선박의 운항스케줄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예상 이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구주항로의 운임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COSCO, 선대확충과 항만개발 추진

중국 COSCO사는 금년 들어 미주지역은 파나마 지역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유럽의 경우도 금년 들어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는 한편, 지난해 하반기에 장기비전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MI의 '지구촌 해양수선' 최신호에 따르면, COSCO사는 지속적인 선대확충으로 운항선대가 1998년 1,650만DWT에서 금년 3,580만DWT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4,000DWT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의 경우 현재 123척 30만TEU에서 2006년까지 45만TEU, 2010년에는 80만TEU의 운항 선대를 보유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수익도 지난 1998년 5억2,000만위안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34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COSCO는 미국시장이 51%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략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자본도 크게 증식할 계획이다.